워너원, 공식 활동 마무리

그룹 워너원이 1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워너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MBC드림센터에서 열린 '2018 MBC 가요대제전' 에서 마지막 무대를 펼쳤다.

강다니엘은 "워너원 고생이 많았다. 내년에도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했고, 옹성우는 "1년 반 동안 워너원으로서 값진 경험을 많이 했다. 흘러가는 몇 초도 아깝다. 오늘로써 워너원 활동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워너원은 공식 트위터에 단체 사진과 함께 인사를 남겼다.

멤버들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너원과 워너블(팬클럽)은 기적처럼 만나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고, 아주 예쁜 사랑을 했어요." 라며 "오롯이 워너원과 워너블만이 기억하는 또렷한 순간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워너블 모두 행복한 2019년 되길 바랄게요." 라고 전했다.

2017년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로 결성된 워너원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계약이 종료돼 각자의 소속사로 돌아갔다. 오는 24~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뒤 완전히 개별 활동을 시작한다. 팬들은 워너원 활동 종료를 아쉬워하면서도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워너원은 역대 프로젝트 그룹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모델로 평가된다. 앨범과 공연의 성공뿐 아니라 예능을 섭렵하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 팬덤을 등에 업고 은행, 주류, 의류, 화장품 등 여러 분야 광고를 휩쓸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블랙핑크, 미국 '코첼라' 뮤직페스티벌 출연

그룹 블랙핑크가 K팝 아이돌 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이하 코첼라) 무대에 선다.

코첼라 측은 2일 2019년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블랙핑크가 4월 12일과 19일 공연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ARIANA GRANDE, THE 1975, DIPLO, KHALID, ZEDD 등 쟁쟁한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블랙핑크는 글로벌 팬덤을 넘어 '아이돌 그룹 최초' 로 무대에 올라, 새로운 K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코첼라의 창시자인 PAUL TOLLETT은 라인업 발표에 앞서 지난해 한국을 직접 찾아 블랙핑크를 초청했다는 후문이다. 매년 봄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리는 코첼라는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음악이 펼쳐지는 축제로 명성을 떨쳐왔다.

서울 잠실 경기장의 약 92배 크기의 장소에서 약 200팀이 2주(주말)에 걸쳐 공연하며, 지난해에만 약 25만여 음악 팬들이 참석했다. 과거 BEYONCE, DRAKE, EMINEM, RADIOHEAD, THE WEEKND, CALVIN HARRIS, AC/DC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뮤지션들도 이 무대에 발자취를 남긴 바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지난해 미국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의 레이블 인터스코프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의 신호탄을 알렸다.

오마이걸, 미국 투어 나선다

걸그룹 오마이걸(OH MY GIRL)이 미국 투어에 나선다.

오마이걸은 오는 18일 애틀란타를 시작으로, 20일 시카고, 22일 휴스턴, 26일 인디오, 27일 산호세 등 총 미국 내 5개 주요 도시에서 '2019 OH MY GIRL 1ST U.S. TOUR' 를 개최한다.

오마이걸이 미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오마이걸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소녀적인 감성과 독보적인 퍼포먼스가 현지 팬들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오마이걸은 미국 투어에 이어 오는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0일 포르투알레그리, 31일 쿠리치바에서 팬 사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상파울루에서 팬미팅을 열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4월 일본 팬미팅을 시작으로 싱가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팬미팅 투어를 펼칠 예정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이 같은 오마이걸의 신년 행보는 비밀정원·불꽃놀이 등의 히트를 비롯해 '2018 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KPMA)' 본상 수상으로 최고의 한 해를 맞았던 2018년의 흐름을 이어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특히 최근 들어 대표적인 K팝 히트지역으로 꼽히는 일본·미국·브라질 등의 대중을 향해 이들의 몽환적인 소녀감성을 전하며, K팝 대표 요정 돌로서 오마이걸의 글로벌 입지를 새롭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